

[제2024-01차]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4년 5월 31일(금) 오후 2시
2. 장소: 머니투데이방송 4층 대회의실
3. 참석위원: 박호진(위원장), 서성완(부위원장), 이호섭, 구강모, 조은아, 김윤정, 임수신 (총 7명 전원 참석)
4. 회의 안건:
 - 안건 1: <MTN 핫라인> 대체 이미지 지양 및 현장 영상·인터뷰 비중 확대 요청
 - 안건 2: 모바일 및 TV 시청 편의를 위한 방송 자막 크기 확대 개선

[회의 내용]

○ 박호진 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청자 불만 처리 대응의 일환으로, 메인 프로그램인 <MTN 핫라인>의 제작 방식과 기술적 가독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.

■ 안건 1: <MTN 핫라인> 현장 영상 및 인터뷰 비중 확대

○ 조은아 위원: 기자로서 보도 공정성을 점검해 본 결과, <MTN 핫라인>에서 일부 리포트가 실제 촬영 영상 대신 정지 화면이나 대체 이미지로 구성되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. 보도의 생동감은 시청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

○ 구강모 위원: PD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해 보니, 제작 효율을 위해 스톡 이미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. 시청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생한 현장음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깊이 있는 취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.

○ 임수신 위원: 방송 콘텐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 화면보다는 실제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취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비중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.

○ 서성완 부위원장: 제작본부 차원에서 제작 부문을 총괄 점검하겠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촬영 영상을 우선 배치하도록 제작 가이드를 수정하고, 인터뷰 섭외 및 현장 취재 인력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■ 안건 2: 방송 자막 가독성 개선(자막 크기 확대)

○ 김윤정 위원: 온라인 총괄로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과 모바일 피드백을 모니터링한 결과, "자막이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"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. 특히 모바일 시청 환경이나 고령층 시청자를 고려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

○ 이호섭 위원: 편성제작국장으로서 해당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. 현재의 자막 템플릿 크기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, 배경과의 대비를 명확히 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즉시 검토하겠습니다.

○ 박호진 위원장: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겠습니다. <MTN 핫라인>의 현장성 강화와 전체 방송의 자막 가독성 개선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즉각 시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. 보도 및 제작 부서에서는 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

·안건 1 관련: 제작본부는 리포트당 현장 영상 비중 70% 이상 유지를 목표로 삼고, 현장 인터뷰 컷 수를 확대하여 생동감을 제고할 것.

·안건 2 관련: 편성제작국은 주요 정보 자막의 폰트 크기를 기존 대비 최소 20% 이상 확대하고, 가독성 높은 전용 서체를 적용한 디자인 가이드를 배포할 것.

·기타: 본 회의록은 운영 규정 제7조 4항에 따라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개함.

6. 폐회: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. (오후 3시 25분)